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2호 [루게 제26126호] 주제 107 (2018)년 9월 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도당위원장들,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

족으로 완전히 빛내어나갈 애국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활렌즈나 이와노브나 마드비엔코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의장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기념촬영을 하시고 친선적인 대화를 하시였다.

마드비엔코의 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일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주시는데 대해 감사사를 드리였다.

석상에서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 온 러시아연방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푸틴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진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마드비엔코의 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푸틴대통령과 로씨야인민의 이름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귀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경축행사에 로씨야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이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축하의 인사와 훌륭한 진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과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로씨야 연방평의회 의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

시한번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로씨야지도부가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연방평의회 대표단을 파견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로씨야 연방평의회 의장과 담화하시면서 반도와 지역정세에 대한 로씨야지도부의 의중과 입장을 청취하시고 정세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촉념은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반도지역과 세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데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 해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선대지도자들이 마련

해주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의회로상간 협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두 나라 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지가 피력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마드비엔코의 장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우리나라 제류기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사설

위대한 인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강대하고 번영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만민이 영웅적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살 위대한 인민의 나라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봉화국장전 일흔칠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

위대한 땅을 따라 탄탄을 밟아나 뚝고나가며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큰 산들을 넘고 넘어 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영웅적인, 창조적 거인들이 9월의 대축전장에 보루장처럼 들어서고 있다.

위대한 땅을 일떠세운 인민의 격정과 원회는 강산을 진감하고 있다. 세상에는 우리 국가의 인민처럼 철을 철을 막아서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도경과 시현속에서 전진발전의 전 로정을 신화적인 기적들로 수놓아는 나라와 인민은 없을 것이다.

공화국창건 일흔칠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전진시켜온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투쟁을 총화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하여 폭풍노도처럼 돌진할 천만민족의 혁명적의지를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이번 경축행사에는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하여 친선의 사절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이것은 자주적이자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 건설을 용감히 개척선도하는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전보적인류의 성양의 표시이며 비상히 높아진 우리 봉화국의 국제적지위에 대한 믿음이 시료로 된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 역사에는 격동적인 승리와 사면들도 많았고 대경사들도 적지 않았고, 하지만 오늘날처럼 우리 봉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최상의 높이에 서며 떨치고 우리 조국이 세간의 비시한 편견을 모른다는 일찌기 없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봉화국의 창조적,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 조국을 전하여인민들, 인민의 이상사회로 빛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한 다짐을 강사하고 열화같은 충성으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으로 선전과 혁명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최대한 실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1948년 9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인민대중중심의 특색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사면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인민의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고 조선인민의 운명과 전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내 세기적인 승리와 번영을 수놓아온 영웅시사시적승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청순한 인민조선에 함축

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민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있게 복수하던 또 새로운 침략의 전운들을 몰아왔다. 너더와 세기불이 감행된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봉쇄책들은 우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에 해아릴수 없는 난관을 조성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며 계급적자본성과 창조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 세계를 경탄시키는 무구강병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에서 70년이란 결코 길지 않다. 이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종합적국력, 인민대중의 처지와 운명에서 맑고더러 천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인민이 주인인 나라, 인민의 인성과 행복을 천년단기 목표로 하는 철벽의 모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는 실재적인 힘을 지닌 지역강국, 이것이 진국 70년을 맞은 주체조선의 위상이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가장 큰 승리는 이 땅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떠안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 건설한것이다.

수천년봉안 이어져온 착취사회에서 역사적 창조자인 근로인민의 처지는 마소보다도 못하였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 다같이 일하며 다같이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지향이다. 인민이 바라는 리상사회, 사회주의건설의 리상당과 지난 세기 많은 나라들이 역사의 새로운 령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도상과 결과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 오늘 제국당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특색한 사회주의국가를 성공적으로 일떠세우고 창조적 일흔칠을 성대히 경축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비할바없이 크다.

우리 공화국은 이 땅에 태를 붙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주어 진정한 어머니같은이다. 인민이 보낸것의 주인이 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한 것, 인민적것이 가장 정의로울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있다. 당과 국가가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후생에 돌려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물리에서는 우리 봉화국처럼 전제 인민이 획득한 대가점을 이루고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정진도덕적으로 나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훌륭히 준비되고있는 나라를 없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험생활을 통하여 억만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인민의 이름을 가시여주거 줄인인 나 남이나 존엄한 시기어나 변함없이 인민의 시선을 인식하는 우리 조국이아말로 진정한 모범적예임을 걸감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의 자주적삶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세계최강의 정치군사적힘을 다져놓은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병도도 자원도 국조까지도 강압당하고 오랜 세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다. 령강들의 폭제와 강도적압박이 묵인되고 합목적되고있는 살만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세상,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무궁민영을 꽃피우자면 그 어떤 대적도 견디지 못하게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는 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위해 천만민족의 힘을 주지없이 선택한 당과 인민의 결사의 노력과 결합없는 공적적으로 흘려왔다. 봉건통치자들의 부패질은 당파싸움으로 사분오열되고 아팠다는 회상충조차 없이 당국의 지지를 강요당하였던 우리 조국이 마침내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함께 최강의 경쟁역세력을 가지게 된것은 민족사적대승리이다. 세인이 봉인하듯이 오늘 우리 봉화국은 그 어떤 대국도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하는 나라로, 주변형세와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일심단결에 최강의 국력을 더한 이 역사적승리의 의미는 참으로 심원하다. 우리 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당보로 가지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나 예라게 바라지만 가질수 없었던 강력한 정치군사적힘을 병도도 크지 않고 세기적으로 뒤편어졌던 우리 공화국이 짧은 역사적기간에 가장 리상적인 높이에서 성취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자랑한 성과는 무진막강한 자강력에 의거하여 인민의 꿈과 이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진도양양한 국가를 건설한것이다.

지배주의, 민족리거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 많은 나라들이 지렬한 분쟁과 무역전쟁에 휘말려들고 제일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은 날로 커가고있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는 미래가 창창한 국가이며 그것은 어떤 제재봉쇄나 세계적인 경제과동에도 끄떡없는 주체적력, 자강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연결 하나 빈번히 만났던 위대한 위령어진 나라, 남에 대한 의존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나라가 해방적자의 조선이었다. 지금 우리 봉화국은 지역생생, 자급자족의 정신이 투철한 인민과 마을만 벽으면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튼튼한 자립경제와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후생에 돌려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물리에서는 우리 봉화국처럼 전제 인민이 획득한 대가점을 이루고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정진도덕적으로 나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훌륭히 준비되고있는 나라를 없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험생활을 통하여 억만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인민의 이름을 가시여주거 줄인인 나 남이나 존엄한 시기어나 변함없이 인민의 시선을 인식하는 우리 조국이아말로 진정한 모범적예임을 걸감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의 자주적삶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세계최강의 정치군사적힘을 다져놓은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병도도 자원도 국조까지도 강압당하고 오랜 세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다. 령강들의 폭제와 강도적압박이 묵인되고 합목적되고있는 살만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세상,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무궁민영을 꽃피우자면 그 어떤 대적도 견디지 못하게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내 세기적인 승리와 번영을 수놓아온 영웅시사시적승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청순한 인민조선에 함축

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민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있게 복수하던 또 새로운 침략의 전운들을 몰아왔다. 너더와 세기불이 감행된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봉쇄책들은 우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에 해아릴수 없는 난관을 조성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며 계급적자본성과 창조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 세계를 경탄시키는 무구강병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에서 70년이란 결코 길지 않다. 이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종합적국력, 인민대중의 처지와 운명에서 맑고더러 천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인민이 주인인 나라, 인민의 인성과 행복을 천년단기 목표로 하는 철벽의 모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는 실재적인 힘을 지닌 지역강국, 이것이 진국 70년을 맞은 주체조선의 위상이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가장 큰 승리는 이 땅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떠안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 건설한것이다.

수천년봉안 이어져온 착취사회에서 역사적 창조자인 근로인민의 처지는 마소보다도 못하였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 다같이 일하며 다같이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지향이다. 인민이 바라는 리상사회, 사회주의건설의 리상당과 지난 세기 많은 나라들이 역사의 새로운 령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도상과 결과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 오늘 제국당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특색한 사회주의국가를 성공적으로 일떠세우고 창조적 일흔칠을 성대히 경축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비할바없이 크다.

우리 공화국은 이 땅에 태를 붙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주어 진정한 어머니같은이다. 인민이 보낸것의 주인이 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한 것, 인민적것이 가장 정의로울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있다. 당과 국가가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후생에 돌려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물리에서는 우리 봉화국처럼 전제 인민이 획득한 대가점을 이루고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정진도덕적으로 나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훌륭히 준비되고있는 나라를 없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험생활을 통하여 억만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인민의 이름을 가시여주거 줄인인 나 남이나 존엄한 시기어나 변함없이 인민의 시선을 인식하는 우리 조국이아말로 진정한 모범적예임을 걸감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의 자주적삶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세계최강의 정치군사적힘을 다져놓은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병도도 자원도 국조까지도 강압당하고 오랜 세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다. 령강들의 폭제와 강도적압박이 묵인되고 합목적되고있는 살만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세상,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무궁민영을 꽃피우자면 그 어떤 대적도 견디지 못하게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는 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위해 천만민족의 힘을 주지없이 선택한 당과 인민의 결사의 노력과 결합없는 공적적으로 흘려왔다. 봉건통치자들의 부패질은 당파싸움으로 사분오열되고 아팠다는 회상충조차 없이 당국의 지지를 강요당하였던 우리 조국이 마침내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함께 최강의 경쟁역세력을 가지게 된것은 민족사적대승리이다. 세인이 봉인하듯이 오늘 우리 봉화국은 그 어떤 대국도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하는 나라로, 주변형세와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일심단결에 최강의 국력을 더한 이 역사적승리의 의미는 참으로 심원하다. 우리 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당보로 가지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나 예라게 바라지만 가질수 없었던 강력한 정치군사적힘을 병도도 크지 않고 세기적으로 뒤편어졌던 우리 공화국이 짧은 역사적기간에 가장 리상적인 높이에서 성취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리 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당보로 가지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나 예라게 바라지만 가질수 없었던 강력한 정치군사적힘을 병도도 크지 않고 세기적으로 뒤편어졌던 우리 공화국이 짧은 역사적기간에 가장 리상적인 높이에서 성취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자랑한 성과는 무진막강한 자강력에 의거하여 인민의 꿈과 이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진도양양한 국가를 건설한것이다.

지배주의, 민족리거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 많은 나라들이 지렬한 분쟁과 무역전쟁에 휘말려들고 제일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은 날로 커가고있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는 미래가 창창한 국가이며 그것은 어떤 제재봉쇄나 세계적인 경제과동에도 끄떡없는 주체적력, 자강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연결 하나 빈번히 만났던 위대한 위령어진 나라, 남에 대한 의존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나라가 해방적자의 조선이었다. 지금 우리 봉화국은 지역생생, 자급자족의 정신이 투철한 인민과 마을만 벽으면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튼튼한 자립경제와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후생에 돌려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물리에서는 우리 봉화국처럼 전제 인민이 획득한 대가점을 이루고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정진도덕적으로 나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훌륭히 준비되고있는 나라를 없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험생활을 통하여 억만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인민의 이름을 가시여주거 줄인인 나 남이나 존엄한 시기어나 변함없이 인민의 시선을 인식하는 우리 조국이아말로 진정한 모범적예임을 걸감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의 자주적삶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세계최강의 정치군사적힘을 다져놓은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병도도 자원도 국조까지도 강압당하고 오랜 세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다. 령강들의 폭제와 강도적압박이 묵인되고 합목적되고있는 살만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세상,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무궁민영을 꽃피우자면 그 어떤 대적도 견디지 못하게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는 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위해 천만민족의 힘을 주지없이 선택한 당과 인민의 결사의 노력과 결합없는 공적적으로 흘려왔다. 봉건통치자들의 부패질은 당파싸움으로 사분오열되고 아팠다는 회상충조차 없이 당국의 지지를 강요당하였던 우리 조국이 마침내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함께 최강의 경쟁역세력을 가지게 된것은 민족사적대승리이다. 세인이 봉인하듯이 오늘 우리 봉화국은 그 어떤 대국도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하는 나라로, 주변형세와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일심단결에 최강의 국력을 더한 이 역사적승리의 의미는 참으로 심원하다. 우리 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당보로 가지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나 예라게 바라지만 가질수 없었던 강력한 정치군사적힘을 병도도 크지 않고 세기적으로 뒤편어졌던 우리 공화국이 짧은 역사적기간에 가장 리상적인 높이에서 성취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리 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당보로 가지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나 예라게 바라지만 가질수 없었던 강력한 정치군사적힘을 병도도 크지 않고 세기적으로 뒤편어졌던 우리 공화국이 짧은 역사적기간에 가장 리상적인 높이에서 성취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자랑한 성과는 무진막강한 자강력에 의거하여 인민의 꿈과 이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진도양양한 국가를 건설한것이다.

지배주의, 민족리거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 많은 나라들이 지렬한 분쟁과 무역전쟁에 휘말려들고 제일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은 날로 커가고있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는 미래가 창창한 국가이며 그것은 어떤 제재봉쇄나 세계적인 경제과동에도 끄떡없는 주체적력, 자강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연결 하나 빈번히 만났던 위대한 위령어진 나라, 남에 대한 의존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나라가 해방적자의 조선이었다. 지금 우리 봉화국은 지역생생, 자급자족의 정신이 투철한 인민과 마을만 벽으면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튼튼한 자립경제와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후생에 돌려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물리에서는 우리 봉화국처럼 전제 인민이 획득한 대가점을 이루고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정진도덕적으로 나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훌륭히 준비되고있는 나라를 없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험생활을 통하여 억만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인민의 이름을 가시여주거 줄인인 나 남이나 존엄한 시기어나 변함없이 인민의 시선을 인식하는 우리 조국이아말로 진정한 모범적예임을 걸감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의 자주적삶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세계최강의 정치군사적힘을 다져놓은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병도도 자원도 국조까지도 강압당하고 오랜 세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다. 령강들의 폭제와 강도적압박이 묵인되고 합목적되고있는 살만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세상,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무궁민영을 꽃피우자면 그 어떤 대적도 견디지 못하게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와 중국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위원장동지에게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진심으로 되는 축전을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후 70년간 조선인민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위업을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최근년간 위원장동지는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경제사회발전 등 분야에서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위하여 중요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새로운 역사적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소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인방입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나라 르세대령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정성껏 키워온 쌍방의 공동의 귀중한 계부입니다. 중국당과 정부는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있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올해 나는 위원장동지와 세차례 상봉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는 위원장동지와 함께 손잡고 중조관계의 장기적이며 견고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가져다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켜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조선인민이 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국가발전과 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둔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 안녕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로씨야연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로씨야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친선적인 성격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인 대화와 여러 분야에서의 건설적인 협조를 더욱 확대할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것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아울러 귀국의 경제 공민들에게 평화와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로씨야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 주체조선의 최고령수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

최세의 천송이인을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이 만방에 과시되고 삼천리강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호풍이 도도히 불어오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남녘대중은 온 겨레의 진정한 조국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성대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남녘의 전 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와 같은 경도심을 모아 주체조선의 영원한 영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민족의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제37(1948)년 9월 9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민주정권, 민족의 나라가 탄생한 세계적인사건이었으며 진정한 조국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이 빛나게 실현된 민족사적 특기할 대정사였습니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철새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찬란한 태양조국의 영웅사시사를 아로새겨온 승리와 영광의 모퉁이이며 위대한 명수의 탁월한 손길과 가장 우월한 민족중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계적인변혁과 기적을 안아온 창조와 번영의 년대기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영성불멸의 주제사상과 항일의 전통에 기초하여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민주의 정치철학과 불멸불후의 영도로 북녘대중을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자주시대 민중위성화건설의 세계적보명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고 곳은 김, 험한 김 가름없이 인생현장을 찾고 또 찾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을 우리들처럼 끝없이 부강번영할 통일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탁발하고 있으며 위대한 조국찬가의 노래높이 만복을 구가하는 북녘민중의 긍지와 희망의 모퉁이 크나큰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실 확고한 의지로 분단세월의 온갖 풍운을 화상한 4월의 봄계곡과 더불어 총나들 버리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장엄한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습니다.

철세의 위인, 민족의 영웅의 비범특출한 정치신력이 안아온 민족사적사건인 관동점수늬상봉과 4.27선언의 제약을 거다만 충격과 일광, 환호와 경탄속에 비바람 우리 남녘대중은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는 새로운 통일역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온 겨레가 대대손손 당골과 다름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심을 상징으로 걸갈하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듯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해 펼쳐진 대동로를 따라 각계층 동포들이 남과 북을 오가며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안팎에 과시하고 있으며 온 겨레는 내외민중일세력의 발악적행동을 짓무시고 거룩적인 조국통일운동에 힘차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는 세계정치거장으로서는 비범한 안목과 탁월한 영도로 주체조선의 대외적권위와 영향력을 급격히 높이고 공화국을 자주시대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온 행성을 전진시킨 싱가포르에서의 세계적인남을 통하여 시대와 역사를 전진하는 특출한 정치신력과 만민을 태복시키는 철세의 위인으로 세인을 경탄케 하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는 류에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며 인류평등 정의와 진리의 정방향으로 힘있게 이끌어주시고 있습니다.

#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재지와 비범한 영도로 전세계를 정탄시키는 정치적대사변들이 번이 이룩되고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펼쳐지고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체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공화국강건일을 맞이한 우리들은 예년에 없는 폭양과 촉열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삼복철기간에 이어 오늘도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강령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거다만 감격속에 우리들로서 세기와 세대를 이어 수명복을 누리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인 긍지와 영예로 헌일이 가슴설레고 있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민대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수명복의 높은 뜻 받들며 우리 조국을 세계가 봉인하는 최상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조국밖 상봉들이 함흥의 공화국기가 휘날린 역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살상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명복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사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애국애민의 헌신으로 우리 조국을 자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전진시켜주신 인류의 국기건설사에 영원히 기록될 불멸의 력사이며 위대한 수명복들의 강국건설업적을 빛나게 개척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담과 배방, 평원무쌍한 영도로 5천년민중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통일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어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펼쳐주시어 전무후무한 기적과 영광의 력사입니다.

제일동포들은 두머운 정을 안고사는 하나의 혈육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국가적행사들에 총련일꾼들과 동포들을 불러주시어 그들이 울며는 소박한 축연의 인사도 경건게 받아주시었을뿐 아니라 사랑의 기쁨사신도 찍어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총을 우리들은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받았을 것입니다.

경사스러운 공화국강건일의 이 아침 우리들은 조국밖 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렬명을 안아오신 불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조미수뇌회담의 세계적인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 조국통일위업과 더불어 총련 애국위업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세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밀매신 조국인민들과 슬기와 보복을 갖추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사해를 전면적으로 관철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위대한 수명복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담아 공화국정부와 조국인민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받아안은것은 이역만방 사는 우리모두의 최상최대의 특전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에 제시된대로 주체위업의 전면적대진군에 앞장서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게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국의 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기어이 이룩하겠습니다.

총련조직위원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영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각종 조직들을 애국애국의 성원으로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총련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충성의 대오, 일심단결의 대오로 강화발전시켜겠습니다.

우리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후대교육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민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며 세 세대청년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힘을 들이고 동포사회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차넘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동포들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높이 불고 풍조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행복만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려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조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도 향한 세시대의 요구에 맞게 력사적인 한민족의 전통을 위대한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의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과의 대외활동을 능동적으로 밀려나갑니다.

우리들의 최상최대의 념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승리의 기적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총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제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육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조선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랑한 70년 행로에는 아버지주석님의 국가건설사상과 로선을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혁명영도로 공화국을 필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실적이 찬연히 수놓아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대미문의 고난과 역경이 가중되던 엄혹한 시기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발악적대진과 고립압박을 단호히 쳐잡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주시었으며 공화국을 위대한 주석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철세의 정치적주파와 민족의 통일번영과 겨레의 자주통일성업실현을 위한 강력한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었습니다.

류에없이 엄혹한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세련되고 모험한 영도의 손길로 공화국을 비상의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주권적보물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불후의 대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인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모시어 자기발전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순결무구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천봉으로 세련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는 공화국의 창조자, 영도자이신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영원한 구방위원의 위업으로 높이 받들어주시고 주체조선을 위대한 태양의 나라로 무궁도록 빛을 뿌리세 하시였습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사리론적지평을 지니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백과사전인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면하시고 온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므로써 공화국을 명실상부히 위대한 주석님의 조국, 위대한 장군님의 나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불변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영력을 면에 빛내어나가신 무한한 사랑정감을 안으시고 부비의 담과 격전, 비범무쌍한 정치신력과 강건한 실천력으로 공화국을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시었습니다.

공화국의 전략적위상과 변화되는 세계의 요구에 맞게 가장 정화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무에서 항도하시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는 계시어 주체조선은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악랄무도한 제제압박에서도 일심단결의 위력과 필승불패의 굳결, 자강력과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적신포를 면이여 창조하며 만민을 끝없이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삼복의 촉열과 영풍의 환호로 이방곳까지 앉으시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7(2018)년 9월 9일 서 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는 위상에서 출중한 위업을 모신 태극도 빛나고 민족도 강대해진다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있는 우리 민족과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애국애국의 영도를 중심으로 받들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일심단결한 불같은 열의로 가슴끓이고 있습니다.

우리 반제민족의 전위투사들은 만민이 경모하는 철세의 위인들과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위정신을 면에 깊이 빛내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항도의 태양으로 빛을 뿌리시게 민족의 운명이 담보되고 통일강국의 미래는 밝다는 무한한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국무위원장님을 일심으로 따르고 따르는 열렬충성심으로 두터이 준비하며 경향각지에 김정은총로동봉이 더욱 세차게 휘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과 미해 풀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조국으로 우리들처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갑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천명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 로선과 방향을 높이 받들어 력사적인 관전선인의 거처따라 내외의 반동일세력들의 행동을 단호히 짓무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총대진함으로써 삼천리강산에 자주적이고 통일번영하는 통일강국의 새 일광을 만시일 앞당겨주시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과 영원한 화살의 손길 찬란하여 불꽃의 앞길, 조선민족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수놓아질것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결집한 소망을 담아 태양조국, 태양민족의 무궁한 행복과 통일번영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조국통일의 위대한 주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7(2018)년 9월 9일 일본 도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인디아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은 동 지 께

원인장까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이하여 인디아공화국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뜨거운 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인디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랜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발전 45돐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각하의 발가를 환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행복하시길과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끊임없는 번영과 진보가 있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 디 아 공 화 국 대 통 령  
람 나 트 코 빈 드  
2018년 8월 30일 뉴 델 리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은 동 지 께

원인장까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정부와 민족회의, 라오스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들 통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형제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친근하고 열렬한 축연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지난 70년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명복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 그 위업의 계승자이신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되고 과감한 영도하에 조선인민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난관속에서도 자립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국방력이 강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인민들의 정신물질적생활과 교육, 사회복리가 높은 수준에서 개선향상된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건설하고 사회주의건설위업수행에도 굳건히 나아가고있는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위대한 성과를 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조국보위와 나라의 발전을 위한 위업에 펼쳐나신 우리 라오스인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으로 됩니다.

나는 지난 시기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수명 카이손 총비한주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수명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마련되고 두 당, 두 나라 최고수뇌들이 의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온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정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훌륭한 전통적 협조관계를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영도하에 조선인민이 강국건설위업과 나라의 평화통일위업수행에서 계속 성과를 이룩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시길과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 양 라 찌  
2018년 9월 7일 비엔리안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은 동 지 께

원인장까지  
나는 당신과와 귀국의 근로인민들에게 역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귀국의 근로인민들과 조선로동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몽 골 인 민 혁 명 당 위 원 장  
느 . 엔 흐 바 야 르  
2018년 9월 3일 울란바타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인디아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은 동 지 께

원인장까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이하여 각하께 가장 열렬하고 따뜻한 축하를 드리면서 이 기회에 각하의 사업에서 성과와 행복이 있을것과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의 현명한 영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게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인 디 아 공 화 국 대 통 령  
람 나 트 코 빈 드  
2018년 8월 30일 뉴 델 리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캄보자왕국 국왕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은 동 지 께

원인장까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이하여 각하께 가장 열렬하고 따뜻한 축하를 드리면서 이 기회에 각하의 사업에서 성과와 행복이 있을것과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의 현명한 영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게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캄 보 자 왕 국 국 왕  
노 로 돔 시 하 모 니  
2018년 9월 4일 프놈 펜



###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온 나라 천만국민이 만리마의 기세 드높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 승리적진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혁명 환경속에서 조국인민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징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이날을 맞이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흥분의 정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려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징은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념위원의 나라, 참다운 인민의 국가의 승리를 선언한 역사적사건이었으며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참된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준 민족사적정기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는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두봉아의 실한총에서 눈보라만리, 피바다만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일찌기 준엄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주체적인정권건설토론회를 구원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일떠세우시었으며 세계주의현세력과의 총포성열은 전쟁에서 원전승만을 택하시었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을 수놓아온 우리 공화국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기 더욱 안전한 빛을 뿌리며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으로, 무조건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셨습니다.

참으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독창적인 사상과 비전을 창시하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우리 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담보하는 요람을 마련해주시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천만년 길이길이 빛날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기 백두의 역사와 인민사랑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세계의 정상에 올라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넘치는 헌신과 불타올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애자애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견디지 못하는 정칙군사강국으로서 세인의 정안속에 국제정치요를 주도해나가며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의 수호자로 공인되었으며 우리 민족거리의 리념대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엄이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들을 절감하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만 계시면 그 어떤 도전과 곤난도 파국히 극복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올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신심에 넘쳐 원수님의 명도를 함양환호함으로 말미암아 나갈 총정의 길에에 총탄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적인 해외동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만을 따르는 애국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단체들과 현대련합회와 역사적인 전문집결진을 철저히 리해하기 위한 평형을 잘 거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저히 주체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따라 노력하길 원하는 조국인민들과 솔선수범도 함께 하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애국동포가 되겠습니다.

이런명에서 조국을 인고시는 우리 재중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은 어제도 오늘도 불변주야 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뜨거운 총정의 한마음을 담아 우리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원만년 미래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제107(2018)년 9월 9일 중국 심양

###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세계의 주체사상인봉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징 70돐을 일렬히 축하하기 위해 평양에 모여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가지었습니다.

우리는 국제토론회를 심파적으로 마치면서 자주시대의 황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가 지향해온 세계적념원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오랜 기간 인류가 이상해온 참다운 사회주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처음으로 역사에 출현하였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은 이념위원을 최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을 나라의 주인으로 귀중히 여기신 주석의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의하여 발전하여왔습니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조선을 압살하려고 획책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을 이끄시어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셨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완벽하게 계승해나가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은 짧은 기간에 자기의 위용을 더욱 만방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각하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여 모든것을 다 펴낼수 없었지만 올해에 일어난 역사적사건들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입니다.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로 시작된 2018년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전환의 해로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는 문명강국과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소리, 건설의 마지못스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의 조국통일사상과 명도업적을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 김정은각하께서는 북남신뢰담을 진행하시었습니다.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그날 각하에서 관건분리선을 넘어서어 문맹 인태통령과 반감제 악수하시고 한화해 웃으시는 모습을 피우며 세인은

환희의 눈물로 볼을 적시었습니다.

북남신뢰담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정은각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주도하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힘을 이룩하시었습니다.

고예한 인간성과 뛰어난 정치지력을 지니신 각하의 모습에서 세계인민들은 새시대를 주도해나가는분이 누구이신가를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에 일어난 역사적사건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진전할 때 반드시 인민대중의 행복만 미래가 도래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주체사상인봉자들의 가슴에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자라나고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오늘을 빛나는 모습,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우리에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생명력을 실증해 주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야말로 세계의 평화, 자주화실현을 위한 필승불패의 기치라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주체사상인봉자들은 영생불멸의 사상을 널리 연구보급하는 역사적사명을 다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김정은각하에서 건강하시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언제나 전투에서 영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일동**  
2018년 9월 8일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각하

존경하는 각하

백두산위인성송국제추진 조직위원회와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대표인 우리들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징 70돐을 경축하는 국제연환모임을 가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한결같은 호모심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일성각하에서와 김정일각하에서 주체사상을 구원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강성대국의 만년대를 마련하신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명들로 영광하십니다.

김정은각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인권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탁월한 정치지도자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평생을 보내고계십니다.

지금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은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것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징 70돐을 경축하고있습니다.

백두산위인성송국제추진 조직위원회와 친선 및 연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들은 앞으로 진보적인인민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각하에서 건강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번영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중대한 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국제연환모임 참가자일동**  
2018년 9월 8일 평양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경의 표시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위원장 볼린시동지가 인솔하는 중화

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경의를 표시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리갑성동지와 주중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상을 우리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혈에서 손님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들은 만민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볼린시동지는 방문록에 《혁명정신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리라》라는 글을 남기었다.

### 김영남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인 김영남동지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제방문하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위원장 볼린시동지가 인솔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진행하신 역사적인 세차례의 중국방문으로 조종천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공하고 전통적인 조종천선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 하였다.

볼린시동지는 아름다운 친선의 나라 조선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따뜻한 환대를 받게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감정을 안고 조종천선반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중국당과 정부의 림정에 대하여 인공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리갑성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평양에 도착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리갑성동지와 주중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상을 우리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혈에서 손님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들은 만민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볼린시동지는 방문록에 《혁명정신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리라》라는 글을 남기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리갑성동지와 주중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상을 우리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혈에서 손님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들은 만민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볼린시동지는 방문록에 《혁명정신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리라》라는 글을 남기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환영회 마련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리갑성동지와 주중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상을 우리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혈에서 손님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들은 만민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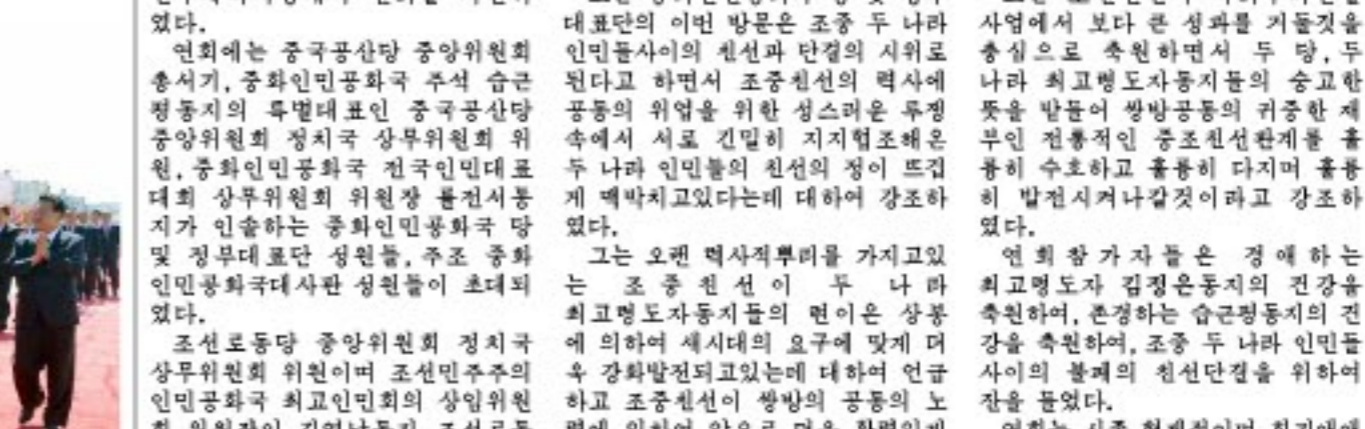
볼린시동지는 방문록에 《혁명정신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리라》라는 글을 남기었다.

다음으로 볼린시동지가 연설 하였다.

그는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은위원장을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명도자동지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쌍방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전통적인 조종천선반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다지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종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관계를 위하여 연회를 시종 형제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정사에 특기할 9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이 8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공화국창건 70돌 경축대표들, 당중앙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평양시인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폴란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 모리파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알바니아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 제1부수상, 필립 알 필립 아랍사회 부총장 지역부서, 월렌제나 이와노브나 마르비코 로씨아연방평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과 특사들,

대표들, 대표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제일본조선인속하단, 재중조선인총연합회속하단, 국제고려인총연합회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속하단, 대표단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세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부,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관객있는 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인민의 노래, 사회주의전가들을 세롭고 특색있게 창조형상하여 환희로운 경축의 무대를 펼쳐놓았다.

녀성중앙과 혼성합창 《9월의 노래》, 녀성독창 《장군님이 그리워》, 현악합주와 노래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라》, 녀성

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등의 다채로운 풍목들이 오른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사,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할 국가건설업적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당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으로 번영의 길을 열며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을 감동있게 펼쳐보인 관현악편곡 《빛나는 조국》은 관람자들의 감성세계를 끝없이 승화시켰다.

인민을 제일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사회주의대지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노래한 녀성독창과 반창 《이 자애로운 우리 어머니》는 장대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9월의 환희가 넘쳐나는 무대에는 역사가 일찌기 잊지 못하는 기억의 시대를 열고 인민의 천만소원을 꽃피워주시는 설세위원의 손길아래 새로운 감성인영기를 펼쳐가는 내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과 인민의 광만과 희열을 담은 녀성중창과 혼성합창 《홍하는 내 나라》와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무용 《복숭아》, 《용해이》, 편현악 《모란봉》도 울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남성독창 《당이어 나의 어머니시여》, 녀성독창과 혼성합창 《인민은 일편단심》을 통해 출연자들은 이 나라 천만자식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과 당중앙의 영도론 일편단심 총정다해 받들어갈 천만국민의 신념을 구가하였다.

위대한 태양을 모시며 존엄높은 탐홍색 공화국기는 장국의 푸른 하늘가에 무궁토록 휘날리며 모든 승리와 영광을 안이오리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혼성합창 《국기에 경의를 드린다》, 풍목 《번영하라 조국이여》로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은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평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을 세계가 우러르는 천하제일의 강대국으로 떠받들어올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모리파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모리파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사이의 회담이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김영남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를 일렬히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를 새롭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과 모리파니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성 리용호 동지, 외무성 부상 리용복동지, 대외경제성 부상 리명산동지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이스마일 울드 셰이크 아흐마드 외무 및 협조상, 바히야 아흐메드 대통령사무국장, 말 모하메드 엘 하비브 주조 모리파니평명전대사, 기타 수행원들이 참가하였다.

##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평양에 도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제1부수상인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동지가 인솔하는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외무성 부상 최희철 동지, 관계인군들과 핵수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쏘틀롱고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수도시민들이 쿠바인민의 친선의 사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환영하였다.



## 모리파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평양에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따라 모리파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국제기압대에는 우리 나라와 모리파니기압이 나뉘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모리파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를 따뜻이 맞이하였다.

김영남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수도시민들이 두 나라 기압과 꽃다발을 흔들면서 모리파니인민의 친근한 사정을 일렬히 환영하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을 위하여 환영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을 환영하여 8일 저녁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라울 까스르로 무스동지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페르푸에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진을 불었다.

【조선중앙통신】











